

한국전쟁기 『주간국제』의 피란 서사와 문화정치*

최 미 진**

차 례

- | | |
|--------------------|----------------------|
| 1. 한국전쟁과 『주간국제』 | 3. 명사필진의 유입과 서사의 다각화 |
| 2. 내부필진과 비판적 저널리즘 | 1) 오소백의 코너들과 사회비판 |
| 1) 방사자의 위상과 칼럼의 변주 | 2) 김소운의 글쓰기와 비판적 성찰 |
| 2) 연성기사와 비판의 국면들 | 4. 사회비평과 문화정치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전쟁기 <주간국제>의 매체전략에 대응하는 피란 서사의 지형을 연구하여 문화정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비판적 저널리즘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사회비평에 주목하여 피란사회의 일상을 서사화한 구체적 면면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우선, 내부필진의 사회비평은 방사자의 칼럼과 <뉴스스토리>였다. 방사자의 칼럼은 특유의 단평을 변주하여 피란사회의 혼란상에 비판적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35525).

** 부산대학교 강사

로 접근하였다. 피란사회 제반문제를 망라했던 초기 단평은 집중형에서 날선 비판정신을 보였다가 불안의 정동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뉴스스토리>는 피란사회에 횡행하던 문제의 이면을 부각시키며 비판적 저널리즘을 강화시켜갔지만, <해외 뉴스스토리>로 전환하면서 이를 선회하더니 윤리문제에 치중하는 방식으로 약화되었다. 그만큼 내부필진의 사회비평들은 강화된 언론 검열에 대응했던 사내의 편집방침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다음으로, 외부필진의 사회비평은 오소백과 김소운이 담당했다. 오소백이 담당한 두 코너, 즉 <거리의 정보실>이 피란수도 부산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직업문제로 확대시킨 르포르타주였다면, <백면불>은 피란사회의 문제들을 풍자적으로 다루었던 칼럼이었다. 방사자의 칼럼과 달리 대상을 확대하고 날선 비판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김소운이 담당한 <토분록>은 특유의 감상적이면서도 비판정신을 살린 칼럼을 내보였다. 피란사회의 당면문제를 외파해갔던 오소백의 칼럼과 달리 김소운은 규범과 윤리문제로 내파하며 비판적 성찰해갔다.

다음으로, 『주간국제』의 피란지 서사는 피란수도 부산의 변화하는 일상문화를 미시적으로 고찰 가능하게 했다. 『주간국제』의 비판적 저널리즘 전략에 조용하는 한편 혼란한 피란사회의 일상을 독자대중과 공유하며 호소력 있는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면면들은 피란수도 부산에 깊숙이 파고든 일상문화의 풍경과 변화하는 사회문화, 그리고 문화정치적 속살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정치파동으로 휘둘리는 피란수도의 발행매체들이 내장한 문화정치적 특성과 한계도 엿볼 수 있었다.

주제어: 한국전쟁기, 주간국제, 국제신보, 피란서사, 문화정치, 칼럼, 르포르타주, 뉴스스토리, 방사자, 오소백, 김소운

1. 한국전쟁과 『주간국제』

앞문을 통과하여 모든 일상적인 절차를 밟아 교섭을 하자면 수개월의 시일이 경과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반하여 뒷문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슬그머니 몇 마디 귓속말을 교환하면 단시일에 원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마 이것은 필연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다.¹⁾

『주간국제』 창간호의 첫머리에 놓인 글이다. 『주간국제』는 1952년 1월 12일 피란수도 부산에서 창간호를 발간한 뒤 1년 넘게 버텨낸 시사 종합주간지였다. 모지 『국제신보』의 비약적 성장의 결과이자 중앙 일간지 도약의 교두보였던²⁾ 『주간국제』는 창간사나 권두언을 내놓지 않았다.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조류>³⁾ 코너다.

<조류(潮流)>는 말 그대로 시대적 경향을 제시하는 칼럼 코너다. 창간호에만 사용된 이 코너는 인용문에서 보듯 세간에 떠도는 “말”을 앞세운다. ‘앞문’과 ‘뒷문’이라는 속설을 대비시켜 당대 동향에 접근한 것이다. ‘앞문’이 법과 규범 등 “일상적 절차”를 따르는 질서의 세계를 빚댄다면, ‘뒷문’은 그러한 절차를 위배하는 무질서의 세계를 환기시킨다. 속설인 만큼 진위를 따져야 할 일인데 유보적 입장을 드러낸다. “필연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라는 발언은 속설로 그치지 않았을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전쟁은 현대적 총력전이였다. 총력전은 전투원과 비전투원 간의 전통적 경계를 해체하고 전 국민을 전쟁에 관여하도록 한다.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국가와 민족 자체의 생존과 정체성을 문제 삼는다.⁴⁾ 냉전 레짐 속에 탈식민 민족국가건설의 열망이 극단

1) 이연재, 「본지 창간 5주년에 제하여」, 『국제신보』, 1952.9.1, 1면.

2) 최미진, 「한국전쟁기 『주간국제』의 발간과 매체전략」, 『로컬리티 인문학』 제25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217-218쪽.

3) 『주간국제』의 기사명은 ‘f’로, 코너명은 ‘< >’로 표기하였음을 부기한다.

적인 이념전쟁으로 전화된 한국전쟁은 ‘비-국민’인 적의 섬멸을 정당화했다. 전쟁의 폭력에서 삶의 보존하는 방법은 상상적 공동체인 ‘민족’이 아니라 반공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강제적인 군사동원과 노무동원,⁵⁾ 후방의 전시동원 등 국가의 호명에 적극 협력해야 했다.

<조류>에서 ‘앞문’은 이러한 국가 주도의 동원정책을 문제 삼는다. 서울수복 후 제2 국민병으로 동원된 청장년들이 각종 비리로 점철되어 “해골의 행렬”⁶⁾로 해산된 국민방위군사건⁷⁾은 군사동원의 대표적 폐해로 간단히 언급된다. 논의의 초점이 된 것은 후방의 전시동원, 즉 ‘전시생활개선법’의 현주소이다. ‘전시생활개선법’은 1951년 11월 18일 “국민생활을 혁신·간소화하여 전시에 상응하는 국민정신의 양양”을 위해 제정·공포되었다. 1951년 7월 휴전회담 이후 전선과 후방의 괴리가 심화된 데다 후방의 “국민생활의 전시체제화”에 대한 지속적 논의들을 법률화한 것이다.⁸⁾ 하지만 후방의 “국민생활”은 법적 규제에도 사치품의 밀매, 성업 중인 고급요정, 넘쳐나는 고가품 등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특

4) 빌헬름 안센, 권선형 옮김,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4: 전쟁』, 푸른역사, 2016, 90쪽.

5) 한국전쟁기 노무동원은 2000년대 이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대표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임하, 「한국전쟁 전후 동원행정의 반민증성」, 『역사연구』 제12호, 역사학연구소, 2003, 55-66쪽.; 이상의, 「한국전쟁 이후의 노무동원과 노동자 생활」, 『한국사연구』 제145호, 한국사연구회, 2009, 291-327쪽.; 나상철, 「6·25전쟁기 노무단의 구성과 활동」, 『군사』 제115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0, 1-44쪽.; 나상철, 「한국전쟁기 보국대의 의미와 성격」, 『학림』, 연세사학연구회, 2020, 203-242쪽.

6) 「국회자가속청철저하라,애국단체협의회성명」, 『동아일보』, 1951.8.8, 2면.

7) 국민방위군사건은 1·4후퇴로 남하 중이던 수많은 국민방위군을 아사, 동사, 병사시킨 사실이 사회적 공분으로 일으키면서 조사에 착수,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이 해산되고 예산 착복 등 비리를 저지른 군간부들이 처형된 사건을 말한다. 하지만 국민방위군사건에 내장된 문제점들은 당대를 넘어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윤충로, 「20세기 한국의 전쟁경험과 폭력」,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2호, 26-27쪽.; 유상수,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의 사적통치기반 형성과 변화」, 『역사학연구』 제82권, 호남사학회, 2021, 273-300쪽.

8) 강창부, 「6·25전쟁기 「전시생활개선법」과 후방의 ‘생활동원」, 『민족문화』 제86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330-336쪽.

히 ‘앞문’을 수비해야 할 공직자들의 타협과 부정이 “사바사바”로 대표되는 ‘뒷문’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어 말한다. 『주간국제』의 첫 글은 “앞문은 없는 것만 같지 못”한 당시 상황을 제시하며 동원정책의 법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주간국제』는 한국전쟁기 격변하는 전쟁 상황과 고조되는 환도 분위기가 맞물리던 피란수도 부산에서 창간되었다. 피란수도 부산은 한국전쟁기 최후방도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의 중심지였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유입된 한도초과의 피란민들과 토박이 지역민들이 피란지의 일상을 공유한 장소이기도 했다. 한국전쟁은 아감벤이 말한 ‘예외상태’다. ‘예외상태’는 법질서 바깥에 있는 것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의 문턱 또는 내부와 외부가 서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식별하지 못하는 구분 불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⁹⁾ 한국전쟁으로 촉발된 일련의 동원정책은 예외상태의 조치였지만, “논리와 실천이 식별 불가능해지는 문턱”¹⁰⁾이 만들어낸 피란사회의 현실은 “뒷문과 앞문이 열려 있”는 아노미 영역이 폭증되고 있었다. 때문에 피란지의 가파른 일상은 당면한 생존문제와 생계유지, 제반 사회현안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넘나들어야 했다.

여기에서 이 글은 한국전쟁기 『주간국제』의 매체전략에 대응하는 피란 서사를 고찰하여 문화정치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다. 비판적 저널리즘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피란사회의 일상을 서사화한 구체적 면면과 그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하겠다.

『주간국제』의 매체지향은 냉전적 반공주의 레짐 속에서 비판적 저널리즘에 두었다. 전시언론 통제정책과 위정자의 압력에도 야당지를 고수했던 『국제신보』의 지향은 『주간국제』에도 이어졌다. 『주간국제』는 편집방침을 망라주의에 둔 시사종합주간지로, 비판적 저널리즘 강화전략

9) 조르조 아감벤,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52쪽.

10) 조르조 아감벤, 위의 책, 82쪽.

과 대중적 문화전략을 주요 편집전략으로 삼았다.¹¹⁾

이때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주간국제』의 비판적 저널리즘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사회비평이다. 칼럼이나 르포, 뉴스스토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회비평은 한편으로 독자대중의 접근성을 높여 매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¹²⁾ 비판적 저널리즘 전략에 따른 사설이나 보도기사가 대체로 무겁고 어려워 독자대중의 접근성을 낮은 편이다. 창간호만 하더라도 시사 비중을 60% 넘게 배치한 결과 “너무 딱딱하다는 독자의”¹³⁾ 평가를 받았다. 그 후 딱딱한 보도기사를 줄이고 “부드럽게 하려는 노력”은 사회비평에 보다 힘을 실는 계기로 작용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후방의 피란사회 면면을 전경화하여 여론 형성에 노력할 수 있다. 사회비평은 ‘예외상태’에 놓인 피란사회의 일상을 다각적으로 접근한 일종의 피란 서사였다. 당시 피란사회의 일상성을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간국제』의 사회비평은 국제신보사 내부필진과 외부 필진의 유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코너별 운영방식도 사뭇 달랐다. 『주간국제』 창간호부터 제15호까지 발굴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구체적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⁴⁾

11) 최미진, 앞의 글, 207-208쪽.

12) 유영철, 「신문 칼럼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2012, 2쪽.

13) 「편집후기」, 『주간국제』 제2호, 1952.1.24., 9쪽

14) 한국전쟁기 『주간국제』는 제18호까지 발간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제15호까지 발굴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발행일은 아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호수	발행일	호수	발행일	호수	발행일
1	1952.01.12.	7	1952.05.08.	13	1952.09.27.
2	1952.01.24.	8	1952.05.27.	14	1952.10.20.
3	1952.02.15.	9	1952.06.16.	15	1952.11.20.
4	1952.03.31.	10	1952.07.15.	16	1952.12.25.
5	1952.04.13.	11	1952.08.18.	17	1953.01.15.
6	1952.04.26.	12	1952.09.05.	18	1953.01.31.

최미진, 앞의 글, 214쪽 참조.

2. 내부칼럼과 비판적 저널리즘의 향방

1) 방사자의 권위와 칼럼의 변주

『주간국제』는 국제신보사 직할체제로 운영되었다. 『국제신보』와 독립된 주간부 조직이 운영되기는 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때문에 창간 당시부터 『주간국제』의 사회비평은 국제신보사의 필진들이 적극 조력하는 양상을 띠었다.

『주간국제』의 내부칼럼을 전담한 것은 방사자(放射子)다. ‘방사자(放射子)’는 사전적 의미로 중앙의 한 지점에서 사방으로 내뿜는 자로서, 칼럼을 통해 여론의 형성을 꾀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이때 방사자는 국제신보사 교정부에 재직했던 고재환이며, 『국제신보』의 칼럼 <방사선(放射線)>을 집필해 호평을 받았다.¹⁵⁾ 그러한 칼럼의 인기를 연계시켜 『주간국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간국제』에서 내부칼럼은 고정 코너로 운영되지 않았다. 칼럼 담당자 방사자를 앞세웠을 뿐이다. 물론 독립된 코너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엿보인다. 제6호에서 <주간추추>가 그러하다. 이것은 『국제신보』의 칼럼 <국제추추>¹⁶⁾에 대응하는 코너로 내세운 듯하지만 일회성에 그치고 만다. 뿐만 아니라 내부칼럼은 연속적으로 실리지 않았다. 창간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와 제7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단속적으로 게재되었다. 부산정치파동 전후로 상당 기간 휴재되었고, 『주간국제』의 내부칼럼이 고정 코너로 자리잡지 못했다. 『주간국제』가 주간지에 걸맞은 발행을 못한 주간지였던 까닭에 더욱 그러하다.

『주간국제』의 방사자 칼럼은 특유의 단평 형식을 변주하며 피란사회

15) 고재환은 <방사선>의 인기에 힘입어 1954년 『한국일보』의 교정부장 겸 <지평선> 칼럼 집필자로 활약했다. 김호, 『잊지 못할 얼굴들』, 『국제신문오십년사』, 국제신문사 사사편집실 편, 국제신문사, 1997, 109쪽.

16) <국제추추>는 1952년 당시 <방사선>과 번갈아가며 매주 3~4회 연재된 인기 칼럼이었다. <방사선>에 비해 감상성을 더한 칼럼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의 혼란상에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방사선>은 『국제신보』 1면 하단의 작은 박스 기사로, 필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짤막하게 담아내는 단평 형식을 지녔다. 이에 비해 『주간국제』는 긴 분량을 허용했던 까닭에 방사자의 칼럼은 단평에서 분화되는 양상을 띤다. 제 양상에 따라 피란사회의 접근방식 또한 달라진다.

첫째, 망라형 단평으로 당시 피란사회 제반의 문제들을 짧지만 재치 있게 비판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를 두루 다루는 망라형 단평은 창간호의 「망중한담」과 제6호 「호! 불호!」가 해당된다. 「망중한담」은 “1·3재 후퇴” 이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대로 다룬다면, 「호! 불호!」는 재수복된 서울이라는 공간에 한정하여 제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방사선>의 단평 형식을 선조적 혹은 공식적으로 재구성한 성격을 띤다.

특히 「망중한담」은 “국제춘추·국제로-타리” 항목을 설정하며 <방사자>와 함께 <국제춘추>의 특징적 면면을 드러낸다. 일상의 변화를 통해 서정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자연계의 춘추”를 제시하면서도 그 “춘추적기”를 피란사회의 문제와 결합시킨다. “죽고도 산 것은 무엇가? 전사순열의 군경용사! 살고도 죽은 건 무엇가? 스파이, 매국노, 모리배상, 탐관오리, 탈세자와 군정병기피자”¹⁷⁾라는 촌평은 봄을 맞이하는 시기가 나열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시점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간과되어 온 순열용사의 처우문제, 사회적으로 퍼져 쪼먹는 부정부패의 주범들에 대해 각각 적절한 보상 혹은 처벌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주장을 가지 있게 제시한 셈이다.

(1)

급료 버는 것으로 밥을 먹일 수 없는 OO 한 끼라도 배불리 먹는 꼴을 보고 싶어 쌀을 훔쳤다. 나가다 마주쳐고 보니 의외에도 제자 집... 죽은

17) 「망중한담」, 『주간국제』 제1호, 1952.1.12., 11쪽.

양심에도 가책을 못 이겨… 운운…했다고! ▲의회전북에 이러한 「밥」 비극이 낫을가? 인천 등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떠도는 것을 보아 침묵자 살유행병이 발생? 만만부당설!¹⁸⁾

(2)

小頭無足이 削子라 火字라 黨字라 米字라 蕪字라 탈字라 그 중 어느 것이 가장 近理한 풀이인가는 灌者 群知어니와 兵火는 닿는 곳에 닿고 兪年도 없는 늙이 먼저 죽게 마련이지만 病앞에는 貧富, 貴賤도 上下, 老少도 左翼右翼도 큰소리가 無用!¹⁹⁾

둘째, 집중형 단평으로 특정한 주제를 초점화하여 피란사회의 혼란상에 접근하고 있다. 망라형 단평과 달리 한정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여기에 「술」(제2호), 「불」(제3호), 「밥」(제6호)이 해당된다. 방사자는 ‘술, 불, 밥’을 피란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다. 그러나 접근방식은 약간 다르다. ‘술’과 ‘불’은 자체의 이중적 성격에 주목한다면, ‘밥’은 일화나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술’에 대한 찬사와 비판이 술이 아닌 “인간”의 문제이듯, ‘불’은 삶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자 파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계속되는 동사와 화재사건을 통해 환기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밥’은 인용문 (1)에서 보듯 사례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교사 월급으로도 가족의 기근문제를 해결 못하고 결국 쌀을 훔치고 보니 제자 집이었다는 사연은 당시의 “「밥」 비극” 상황을 실감 있게 부각시킨다. 뿐만 아니라 부산뿐 아니라 전북, 인천 등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떠”돌 만큼 “「밥」 비극”이 만연해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밥」 비극”은 1952년 당시 심각한 쌀값 폭등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피란수도 부산의 쌀 소매가격은 20리터 기준으로 1950년 3월 41원이던 것이 1951년 12월에 353.6원, 1952년 12월에는 1,041.9원으로 폭등했다. 전쟁 직전보다

18) 방사자, 「밥」, 『주간국제』 제6호, 1952.4.26., 2면.

19) 방사자, 「정감록 뒤풀이-地」, 『주간국제』 제13호, 1952.9.27., 9쪽.

25배 상승했고, 전년 대비에도 약 3배 등귀했다.²⁰⁾ 1952년에 한정해도 정월에 1말 기준으로 3만원하던 쌀값이 3월 초 7만원, 한때 15만원까지 폭등했다가 12월 10만원대를 호가했다.²¹⁾ 인용문 (1)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비싸”진 3월의 쌀값 폭등이 촉발한 상황을 반증하며, 방사자는 정부의 관련정책이 “기만정책”에 불과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3월 초부터 정부는 응급구호미를 방출하고 외국미 수입을 서두는 한편 비상대책위 설치, ‘전시생활개선법’을 활성화한 ‘절미국민운동’, ‘양곡관리법중개정안’ 시행 등을 통해 쌀값 폭등을 완화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민생안정의 기반이 쌀값 폭등으로 심각하게 무너져갔던 피란사회를 사례를 통해 공감대를 구축하고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해갔다 하겠다.

셋째, 심화형 칼럼은 여러 회에 걸쳐 특정 주제를 심도 있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3회에 걸친 「정감록 뒤풀이(천·지·인)」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감록 뒤풀이」 칼럼들은 대표적 예언서 「정감록」을 앞세워 피란사회에 만연했던 불안의 정동에 접근한다.

인용문 (2)는 「정감록」이 시대와 논자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들을 전경화한다. 외국뿐 아니라 부산, 대구, 서울에 비행접시 출현설이 나돌면서 “재난 속에서 생민을 구출할 비결을 적은” 「정감록」이 부상하고 있던 상황을 천(天)편에서 제시했다면, 인용문 (2)의 지(地)편은 「정감록」의 뒤풀이가 논자에 따라 “削子라 火字라 黨字라 米字라 蕪字라 탈字”로 달리 해석되는 방식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그만큼 「정감록」이 정당한 근거 없이 논자에게 이로운 대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病 앞에는 貧富, 貴賤도 上下, 老少도 左翼右翼도 큰소리가 無用”하듯, 떠도는 「정감록」 뒤풀이들도 “無用”한 셈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인(人)편은 「정감록」으로 대표되는 “뿌리 깊은 미신과 전설”²²⁾을 타파해야 한다는

20) 공미희, 「한국전쟁기 부산의 경제상황과 피란민의 경제활동 연구」, 『지역사회학』 제23권 1호, 지역사회학회, 2022, 119-120쪽 참조.

21) 「닥쳐오는 동장군 떨리는 호주머니」, 『동아일보』, 1952.11.10., 2면.

점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고 있다. 「정감록 뒤풀이(천·지·인)」는 “제2 백백교”로 불리던 일관도사건²³⁾처럼 피란사회에 만연했던 불안의 정동을 부추기며 사리사욕을 챙겼던 미신 문제를 심도 있게 비판하고 있다. 즉 심화형 칼럼은 피란사회의 혼란상에 주목한 망라형과 집중형 칼럼과 달리 지배적인 불안의 정동을 문제 삼았다. 전반적으로 방사자의 칼럼들은 한국전쟁기 피란사회가 당면한 아노미 국면들을 비판했던 셈이다. 더욱이 고정화된 칼럼을 변주하며 기지와 창발성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주간국제』의 경쟁력 확보에 조력했다 하겠다.

2) 연성기사와 사회비평의 국면들

『주간국제』에서 내부필진의 사회비평은 <뉴스스토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토리>는 일종의 연성기사에 해당되는데, 대부분 이야기를 가미하여 뉴스의 이면에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즉 하나의 사례 혹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내러티브 스타일을 보여준다.²⁴⁾ 독자대중의 흥미 유발과 기자의 비평적 자질이 두루 요구되지만, 그만큼 신생 시사종합주간지 『주간국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뉴스스토리>는 내부칼럼과 달리 독립된 코너로 운영되었다. 제2호에 신설되어 제15호까지 단속적이거나 총10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부산

22) 방사자, 「정감록 뒤풀이-地」, 『주간국제』 제14호, 1952.10.20., 4쪽.

23) 일관도(一貫道)사건은 중국에서 금지당한 사교를 한국으로 들여와 한국전쟁기 불안의 정동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다 적발된 사건이다. 꾸준하게 공덕을 쌓으면 폭격에 맞아죽지 않으며 제 명대로 살다가 극락세계에 가고 인간으로 갱생한다는 교리를 유포하여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교인들이 있었으며, 유언 비어 유포 등 범죄사실이 적발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탄로난 국제사교 일관도-본거는 천진 서울에 지부 두고 각 지방에도 침투」, 『조선일보』, 1951.9.18., 2면.

24) 남재일·이완수, 「역피라미드 구조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4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08, 146쪽.

정치파동의 영향으로 제7호부터 제9호까지 3회 휴재되었는데, 내부칼럼의 중단시기와 유사한 양상을 띤다. 그것은 <뉴스스토리>가 국제신보사의 내부필진이 참여한 코너라는 점과 연관된다. 사내 편집방침에 따라 내부필진의 사회비평이 중단되었던 셈이다. 이때 내부필진은 제10호부터 이니셜 대신 기자명을 대부분 밝히고 있다. 국제신보사 기자 김일택과 박철이 담당했다.²⁵⁾

주목할 점은 <뉴스스토리>가 한국전쟁기 피란사회에 접근하는 방식이 시기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계는 <뉴스스토리> 신설 초기 게재된 기사들로 피란사회에 횡행하던 문제의 이면을 초점화한다. 「죽음이 남긴 항의」(제2호)와 「밀항자의 수기」(제3호)가 여기에 해당된다. 「죽음이 남긴 항의」가 중학생 자살사건을 이야기로 재구성하면서 이유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해부”한다면, 「밀항자의 수기」는 한 밀항자의 수기를 전면에 내세워 비판적 기능을 대신한다. 이들은 피란사회에 만연해 있던 자살사건과 밀항문제가 내장한 사회적 병폐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²⁶⁾

얼마 안 되어 이삼일 전에 일인당 삼십만 원씩을 선박비조로 지불 때 보았던 선주와 선장 그리고 밀선 주모자들이 나타났다. 우리는 이들 안 내로 드디어 배에 오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돼지」를 신자고 수군거리면서 우리들을 한사람씩 배에 인도했다.(돼지란 밀항의 대명사이며 그 이유는 인간 대우보다도 「돼지」처럼 꼭 싣고 간다는 뜻이다.) 나는 배가 얼마나 크며 속도는 얼마나 되는가 자못 궁금히 생각하면서도 일방 공포에서 떨리는 몸을 간신히 안정시켜가며 그들이 안내하는 데에 그야말로 「돼지」처럼 따라가 많이 실리었다. 배에 오르는 했지

25) 최미진, 앞의 글, 233쪽.

26) 「죽음이 남긴 항의」는 당시 생활난을 비판한 일련의 자살사건과 달리 상이군인의 열악한 처우문제에 “항의”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자살사건의 원인을 사회적 병폐, 즉 “국회의 가짜 애국자들”로 대표되는 “전쟁사회의 부정부패와 무배려”를 문제 삼고 유서를 통해 호소하고 있다.

만 머리도 들 수 없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게 하였다. 그야말로 돼지라도 소리를 낼 터이지만 무슨 OO처럼 꽉 실었다. 그것은 밀선이니 O형 인에게나 특히 당국자들에게 발각될까를 무서워한 이유다.²⁷⁾

「밀항자의 수기」는 병역 기피를 위해 일본 밀항을 시도했다 실패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전문 중개업자를 통해 통영에서 대마도로 3회에 걸쳐 밀항을 시도했던 과정을 시기별, 상황별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쟁기 군사동원에 많은 수의 병역 기피자가 발생했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상인원 대비 기피인원이 1951년 14.5%이던 것이 1952년은 17.2%, 1953년 21.4%에 달했다. 특히 국민방위군사건이 군사동원의 병폐를 드러내면서 군을 불신하고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⁸⁾ 병역 기피자의 탈출구 중 하나가 밀항이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밀항에 대한 적대적 공론화와 처벌 장치가 운용되었다. 밀항자는 조국의 위협을 망각한 “도피자”, “도망자”로 규정되었으며,²⁹⁾ 전쟁국가가 요구하는 ‘애국’을 거부한 ‘비국민’으로 간주되었다. 더욱이 밀항자는 인용문에서 보듯 “돼지”만도 못한 숫자들로 취급된다. 인간적 대우는 기대할 수조차 없다. 그런 상황에서 “당국자들에게 발각될까봐” “공포와 초조” 속에 떨어야 했다. 결국 밀항의 실패하고 밀항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유치장에 송치된다. 그제야 안도 아닌 안도를 하며 자기반성을 한다. 여기에 밀항업자들이 “거리를 확보할” 만큼 밀항이 횡행했고, 때문에 밀항업자들의 법치가 무엇보다 우선된다는 점을 덧붙여 강조한다. 그 이면에는 밀항 중개업자들의 전횡적 행태와 비인간적 대우에도 3차례에 걸쳐 밀항을 감행했던 절박함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병역 기피자들의 ‘생존’의 욕망을 넘어서지 못했던 당대의 상황을 반증한다

27) 「뉴스스토리: 밀항자수기」, 『주간국제』 제3호, 1952.2.15., 8쪽.

28) 이임하, 앞의 글, 44-45쪽.

29) 김예림, 「현해탄의 정동-국가라는 “슬픔”의 체제와 밀항」, 『석당논총』 제49권,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1, 328쪽.

하겠다.

둘째 단계는 <해외 뉴스스토리>로 전환하여 실은 번역 기사들이다. 「화성돈의 비밀정보」(제4호), 「최근의 영국상」(제5호), 「도난당한 美군사일기」,³⁰⁾ 「휴전과 美수뇌층」(이상 제6호)이 여기에 해당된다. 「화성돈의 비밀정보」가 워싱턴 주재 외교관들의 “적나라한 밤의 생태”를 문제 삼는다면, 「최근의 영국상」은 「킨제이 보고서」에 걸맞은 『영국인의 생활과 유한』 출판을 널리 알리면서 유한계급의 유흥문화를 전반적으로 다룬다.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해외의 고급관료 혹은 유한계급 전반의 문화적 상황을 번역된 해설 기사로 전달한다.

번역된 <해외 뉴스스토리>는 남한 피란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알레고리화 하고 있다. 일련의 해외 사건들은 일종의 알레고리로 한국사회의 관료들과 유한계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비판적 담론에 함께 한다. 특히 그것은 부산에서 발생한 김광주의 필화사건과 깊이 연루된 편집으로 보인다. 김광주의 필화사건은 1952년 1월에 창간된 정치전문 종합지 『자유세계』에 실린 김광주의 소설 「나는 너를 싫어한다」가 실제 모델소설이라는 유언비어가 범람하자 당시 공보처장 이철원 부인이 작가를 구금 린치한 사건이다. 『경향신문』은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광주 린치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것은 권세가의 횡포를 넘어 이승만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면서 피란사회의 담론을 들끓게 했다. 『주간국제』의 필진들 또한 문인기자 김광주와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해외 뉴스스토리>에 빗대어 당시 여론의 확산에 조력한 듯하다.

셋째 단계는 <뉴스스토리>가 복귀한 이후 기사들로 피란사회의 혼란

30) 「도난당한 美군사일기」는 냉전 레짐이 구축한 ‘스파이 담론’을 보여준다. ‘스파이 담론’은 풍기문란 담론의 확장대를 통해 구성되는 비국민과 국민됨의 관계를 동일하게 드러낸다. 권명아, 「음란함과 죽음의 정치」,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9, 148쪽.

상을 대부분 윤리적 문제에 한정하여 접근하고 있다. 「파륜에 우는 의모」(제10호), 「밤에 만난 여학생」(제11호), 「신판 “숙명의 피」(제12호), 「엽기! 공포의 5일간」(제13호), 「뒷골목이 인생극」(제15호)가 여기에 해당된다. 「파륜에서 우는 의모」가 대학생 양자가 아버지의 후처인 의모와 그 딸을 성적 유린한 사건의 면면을 되짚고 있다면, 「뒷골목의 인생극」은 전쟁 전 이야기임에도 접대부 순회를 씨받이로 삼으려는 늙은이의 야욕을 막아선 남성이 사위로 등장하며 파란을 일으킨 사건을 제시한다. 암암리에 이루어졌지만 거론되기 힘들었던 친족 내 성범죄문제와 빗나간 남아선호사상의 이면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신판 “숙명의 피”」는 앙드레 모르와의 동명소설을 앞세워 여성에게 요구되는 순결지상주의와 혈연중심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전쟁기 가부장적 한국사회가 앞세운 윤리의 이율배반적 양상을 보여준다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밤에 만난 여학생」은 ‘전쟁-피란-생활고’의 악순환 속에 매춘굴에 들어온 한 여학생의 실화를 제시한다. 피란지 부산의 매춘굴에서 활동하는 여성은 “기생물림, 식모, 유한마담, 여직공, 가짜 대학생, 아편중독자” 등이 들끓었고, “굉장한 선물”로 부상한 여학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기에서 필자의 시선은 “뽕뽕걸, 양부인” 등 “헌신짝처럼 버려진” 이들의 속사정을 부상시키며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우리들이 “편견에 휘둘린 냉혈한”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3. 명사필진의 도입과 서사의 다각화

1) 오소백의 활동과 사회비판

『주간국제』에서 외부필진으로 사회비평 코너를 담당한 인물은 대표적 인물은 오소백이다. 오소백은 1·4후퇴 후 『민중일보』, 『민주신보』를 거쳐³¹⁾ 1951년 7월 15일 『부산일보』 사회부장으로 처음 임명되었다. 그러

나 오소백 주도로 편집국장 심형택 배척운동에 앞장섰다가 1952년 2월 20일 오소백을 비롯한 피란인사들이 대거 해임되었다.³²⁾ 그리고 동료 기자와 함께 해임의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내놓아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³³⁾ 그 후 오소백은 글쓰기를 중단하지 않았고,³⁴⁾ 『주간국제』에도 글을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주간국제』에 오소백이 발표한 글은 총 9편³⁵⁾이다. 대부분 <거리의 정보실>와 <백면불> 두 코너를 통해 게재되었는데, 거기에서 오소백은 피란 서사의 여러 자리를 펼쳐보였다.

우선, <거리의 정보실>은 피란수도 부산의 달라진 풍경에 주목한 르포르타주다. 르포르타주는 사회현상이나 사건을 전문가의 식견을 배경으로 심층 취재하여 대상의 이면적 뉴스나 에피소드를 포함하는 종합적 기사로 완성하는 방식이다. <거리의 정보실>의 르포르타주 방식은 이미 『신천지』에서 주요 포맷으로 활용되어왔고,³⁶⁾ 오소백 또한 이 코너를 통해 명망을 얻어왔다. 『신천지』의 성공적 포맷과 명사 오소백을 전유하여 『주간국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필명

31) 오소백, 「신문계의 반항아」, 『신태양』 제71호, 1958.8, 104-105쪽.

32) 정진석, 「현장을 역사로...9번의 사회부장-청오 오소백 언론사적 연구」, 『영원한 사회부장 오소백』, 서울언론인클럽 추모문집편찬위원회 편, 한국홍보연구소, 2009, 51-54쪽.; 부산일보사편찬위원회 편, 『부산일보 1946~1984』, 부산일보사, 1985, 520쪽.

33) 오소백·정영태, 「진정한 언론인동지들에게 고함-특히 일선기자들에게 보내는 글월」, 『경향신문』, 1952.3.7., 2면.

34) 당시 중앙 일간지의 사회부 기자, 더욱이 사회부장 출신 기자에 대한 권위의식이 상당히 높았고, 때문에 기사가 아닌 잡문에 대한 폄하의식이 상당히 깊었다. 그러나 오소백은 기자들의 권위보다 가족의 생계문제가 우선인 가장으로서 의무를 강조하며 적잖은 글들을 썼다. 오소백, 위의 글, 104-106쪽.

35) 사회비평 코너 외에도 2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수필 「아동과 동란과 인생」(『주간국제』 제10호, 1952.7.15. 17-19쪽.)과 기사 「신문의 위기-언론계 이상 있다」(『주간국제』 제12호, 1952.9.5., 20-22쪽.)이다.

36) 이봉범, 「잡지 『신천지』의 매체 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제39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0, 254-256쪽.

“오신(吳迅)”으로 게재된 것도 그러한 맥락에 놓여 있다.

또 하나의 해안 하꼬방 부락이 있으니 이가 곧 송도로 지향하는 해안에 임한 하꼬방 부락이다.

우불구불 해안선의 원곡에 따라 판합집이 마련되었다.

판합라고는 하지만 그실 미군들의 레이슨·박스며 마분지 따위로 된 수공지(手功紙)집도 있으니 펴 재미있다. 바람이 불면 이촌(二寸)기둥만 남겨 놓고는 모두 해공으로 날아갈 지경이니 이게 하루살이 생활이 아니고 무엇이랴.³⁷⁾

<거리의 정보실>을 통해 오소백은 4편의 글을 연속적으로 발표했다.³⁸⁾ 「하꼬방의 세계-그의 필연성을 해부함」(제4호), 「전시의 가두직업」(제5호), 「카츄사의 주막」(제6호), 「제2의 송도」(제7호)이다.

「하꼬방의 세계, 그의 필연성을 해부함」은 ‘하꼬방’으로 대표되는 피란수도 부산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하꼬방의 어원과 기원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부산의 하꼬방이 도시 전역에 산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용문처럼 송도 해안가에 위치한 하꼬방 부락은 일견 화려한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하꼬방, 즉 “판합집”은 피란지 간이주택의 일종이다. 간이주택은 간단한 재료와 도구로 지붕과 벽을 갖춘 소규모 집으로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불렀다. 깡통 등 철판이면 양철집, 루핑재면 루핑집, 판재면 판чат집, 기름칠한 종이면 하꼬방, 종이나

37) 오소백, 「하꼬방의 세계-그 필연성을 해부함」, 『주간국제』 제4호, 1952.3.31., 17쪽.

38) 이 시기 전시 복간된 『신천지』의 <거리의 정보실>에서도 오소백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만화경답사」는 피란지 부산에 등장한 ‘도떼기시장’의 “만화경”을 분석하고 그 ‘비정상성’을 비판적하고 있다. 뒤이은 「항도명물四題」는 피란민의 시각에서 부산에서 대면한 진풍경을 분석하고 있다. 오신, 「만화경답사-도떼기시장을 해부함」, 『신천지』 제7권 2호, 1952.3, 93-94쪽.; 오신, 「항도명물四題」, 『신천지』 제7권 3호, 1952.5.10., 86-87쪽. 동일 코너가 『주간국제』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발표되면서 오소백의 자리를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판재로 만든 박공 형태면 바라크집이 된다.³⁹⁾ 그런 집들은 임시주거에도 부적합하고 화재에도 열악했다. 여기에서 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린 피란민들의 “비명이 나날이 높아가는 걸 위정자는 아는가 모르는가” 되물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시의 가두직업」은 하꼬방을 전전하는 피란민들이 생계를 위해 만들어낸 직업 양상을 보여준다. 당시 피란수도 부산에는 “나체주막, 대서업, 세탁쟁이, 서방, 일본서방, 행상이발사, 달라장수, 구두뒀이, 신문장수, 양담배장수, 매음녀, 땀서 등” “가두직업”으로 나서고 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직업들은 전쟁기의 ‘비정상적’ 상황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생존 위기에 내몰린 피란민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것은 「카츄사의 주막」과 「제2의 송도」는 “나체주막”을 초점화하여 제시한다. 전망만 좋은 “지붕 없는 주막”은 “해방된 주막”처럼 낭만화되지만 그 이면에는 “치외법권”을 둘러싼 문제를 상당히 내장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여기에서 필자는 피란민들이 내몰린 ‘비정상’적 상황을 곧추세우면서 무엇보다 “먹어야 산다는 평범한 진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피란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계방식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제재에 대한 비판을 내장하고 있는 셈이다. <거리의 정보실>을 통해 부산 피란민의 열악한 상황을 전경화하면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백면불(白面不)>은 특유의 풍자적 단평을 확인할 수 있는 칼럼이다. <백면불>을 신설·담당하면서 전문기자의 안목으로 피란지 부산의 혼란상을 다각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백면불>은 『신천지』의 <삼면불>을 전유한 코너다. <삼면불>은 오기영이 전담 집필하면서 『신천지』의 권두언적 성격을 띤 시평이었다면,⁴⁰⁾ <백면불>은 매체의 대표성을 대상의 확대를 통해 풍자적 단평을 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치, 사회, 문화 전반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동시에 풍자적 단평으로 전환한

39) 유재우·김준·송혜영·홍지완, 「부산의 한국전쟁 피란민 주거지와 피란주택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36권 3호, 대한건축학회, 2020, 9-10쪽.

40) 이봉범, 위의 글, 237쪽.

것이다. 방사자의 칼럼들과 반대 방향인 셈이다.

(1)

<전략> 정부 허가없이 입시된 칠십만 서울시민은 또 한번 실망했다. 환도설에 지치고 후퇴에 진절머리난 시민들은 「와도 그만 가도 그만」설로 오도가도 못하는 절망의 심학이 있을 뿐!

「還都」가 「煥都」로 바뀌어서는 그야말로 「患都」가 될 것이니 행정부의 책임 있는 언명이 감정이나 희망에서가 아니고 정확한 근거와 철저한 계획밑에서 나와야 한다. 희망과 현실이 상이하듯 還都和 煥都도 자못 다르다.

「患都」서울에 봄은 깃들었건만 「還都」의 상사병은 언제나 풀이지러나.⁴¹⁾

(2)

▶ 지방선거 최고조, 「작대기」선전 도처황행. 작대기도 막대도 장작도 좋다. 제발 통행시간 지나 「작대기」 휘두르지 마소. 원종일 피로한 몸 안면방해되나니. ▶某지방 면의원 정견연설에서 응변을 토한 지사. 가라사대 「나는 말도 못하고 재간도 없고 학식도 없지만 한 가지 남보다 특출한 게 있소. 그건 내가 누구보다도 돈이 많다는 것이요」라고. 지당한 응변이다. 귀중한 한 표 얼마씩에 사드릴 생각이십니까? ▶盧선거위장 「지방선거 분위기 비교적 양호」라고. 비교적 불량하지는 않단 말이겠지. ▶국회의원선거에 낙선된 영도某씨, 이번에는 붉은 법의에 복두칠성 그리고 지상교를 선포. 교주되기 전에 시의원출마 한 번 더 해보지 않고 — 역시 과대망상증인가?⁴²⁾

인용문 (1)은 「책임 없는 풍자방담」의 한 대목이다. ‘병든 출판물법안’과 ‘還都아닌 患都’ 2개 항목으로 나뉜 글 중에 후자에 속한다. 대통령의 삼월환도 언명이 “미국식 시민위안”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휴전회담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성급한 환도 언명이 특히 물가상승을 부추기며 국

41) 오소백, 「책임 없는 풍자방담」, 『주간국제』 제5호, 1952.4.13., 9쪽.

42) 오소백, 「백면불」, 『주간국제』 제7호, 1952.5.8., 12쪽.

민들의 생계 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부각시킨다. 때문에 “「還都」가 「煥都」로 바뀌어서는 그야말로 「患都」가 될 것”이라는 점을 필자 특유의 언어유희를 활용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유희는 오소백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유희방식으로 피란사회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시각이 독자와 공유하며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조력하고 있다.

인용문 (2)는 도의원 선거의 혼탁한 분위기를 전경화하며 풍자적으로 단평하고 있다. 1949년 3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5월 10일 도의원 선거가 처음 실시되었다. “비교적 양호”하다는 선거위의 발표와 달리 “비교적 불량”을 넘어선 선거 분위기가 만연했다. “「작대기」선전”, 금전 선거가 횡행했던 상황과 도의원 출마자를 “지상교” 교주에 견주어 비꼬고 있다.

<백면불>은 제목에 걸맞게 피란지 부산이 당면한 사회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드러낸다. 「책임 없는 풍자방담」이 2개 항목에 그쳤다면, 「4, 4반기성명서」에서는 5개 항목으로, 그리고 소제목이 없는 인용문 (2)는 19개 항목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내외 사회문제를 전방위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도의원 선거를 앞둔 피란수도 부산의 혼탁한 사회상이 부산정치파동의 전조와 겹쳐지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백면불>은 그러한 만화경을 담아내면서 해당 사건들의 핵심을 찌르는 말 한 마디로 약점을 드러내는 풍자 방식을 잘 보여준다. 시의적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묵혀둔 비판의식에 대한 대리 충족의 효과를 가진다. 때문에 “애독자의 박수갈채를 받는”⁴³⁾ 코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2) 김소운의 글쓰기와 비판적 성찰

<토분록>은 외부 필진인 김소운이 담당했다. 김소운은 일제강점기 『조선동요선』 등을 일본에 내놓은 번역문학가로 널리 알려졌지만,⁴⁴⁾ 식민

43) 「편집후기」, 『주간국제』 제6호, 1952.4.26., 32쪽.

지 조선에서 아동문학 잡지의 발간과 창작에 힘썼던 아동문학가다.⁴⁵⁾ 일본에서의 명망에 비해 귀국한 한국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한국전쟁기 작가는 고향 부산에서 주로 수필가로 활동했고, 특히 1951년 『국제신보』에 발표된 「목근통신」을 기점으로⁴⁶⁾ 독자들과 공감대를 확보하며 작가의 기반을 두텁게 했다. 그런 점들이 『주간국제』에서 독자적 코너를 담당하게 된 이유로 보인다.

닭이장(鷄舍) 옆에다 토끼를 길르면 토끼똥의 靈驗으로 닭의 풍토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이다. 그 진부를 마치 보증할 수 없으나 내 雜筆의 連脈도 體系도 이루지 못한 품이 흡사 토끼똥을 닭았을 뿐이요, 내 글이 천연의 丸藥인이 兎糞의 영험을 자부한다거나 吐憤의 暗意를 풍겼다가 하는 그런 외람된 뜻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⁴⁷⁾

<토분록>의 첫머리다. 김소운은 자신이 쓸 글을 ‘토분’에 빗대어 새 코너를 연다. 그 ‘토분’은 “난맥도 체계도” 갖추지 못한 “잡필”에 불과하며 독자가 기대할 “영험”이나 “암의”도 없다고 밝힌다. 겸양의 태도지만 그 이면에 의미와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토분록>에 발표한 글들은 아래 표와 같다.

-
- 44) 박지영, 「“번역불가능성”의 심연: 식민지시기 김소운의 전래동요 번역(일역)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42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0, 274-309쪽.; 배수찬, 「김소운의 글쓰기 환경과 번역작업에 대한 고찰」, 『문학교육학』 제34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213-242쪽.
- 45) 박영기, 「김소운의 조선어, 일본어 혼성 과외교육잡지 『신아동』 연구」, 『문학교육학』 제72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21, 65-94쪽.; 김광식, 「김소운이 주재한 첫 과외교육잡지 『아동세계』 해제: 일본어 기사를 중심으로」, 『근대서지』 제23호, 근대서지학회, 2021, 413-426쪽.; 김광식, 「김소운이 주재한 아동잡지의 소개와 『목마』 창간호」, 『근대서지』 제22호, 근대서지학회, 2020, 53-63쪽.
- 46) 권경미, 「『목근통신』과 탈/식민적 이중성」, 『한국문화연구』 제31권,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6, 85~111쪽.
- 47) 김소운, 「후퇴죽」, 『주간국제』 제5호, 1952.4.13, 24쪽.

<표> <토분록> 글 목록⁴⁸⁾

호수	제목	호수	제목
5	후퇴족	9	선거/ 유끼다와 파자마
6	一處不往의 출가도 아니고 遊離乞食하는 부랑자도 아닌 소운의 항담	10	어느 어머니
7	포석선생	11	珍說이태리기행
8	답안	12	특급품

<표>에서 보듯 <토분록>은 <백면불>과 달리 중단 없이 게재되었다. 당시 「편집후기」는 <토분록>이 “만천하 애독자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상황을 밝히며 “앞으로 꾸준히 내놓아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⁴⁹⁾ ‘토분’에 불과하다던 글들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셈이다.

<토분록>은 김소운 특유의 감상적 칼럼이다. 사변적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지만, 그것이 한국전쟁기 당면한 피란 사회문제와 윤리적 가치 등과 유연하게 결합하면서 비판적 성찰을 이끌어낸다. 그것은 작가만의 “확대경”, 즉 “어디까지나 현실을 疑視하면서 그 기형적인 현실 속에 괴팍스러운 자기를 몰아넣고 한바탕 부대끼고 나서는 엄혹한 자기감시 밑에 붓을 들어 내리갈기”⁵⁰⁾는 비판정신을 기반으로 삼는다.

48) <토분록> 소재 글들은 『김소운 수필선집』 제1권의 「삼오당잡필」 편에 상당부분 재수록되었다. 선집에 수록된 것은 제5호, 6호, 8호, 9호, 12호 작품들이다. 이때 제6호는 작품명이 「소록도풍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제8호와 9호 작품은 나누어 제시되었다. 제8호는 「답안」과 「전시송금」으로, 제9호는 「선거」와 「파자마씨」로 각각 발표했다. 김소운, 『김소운 수필선집(제1권)』, 동성출판사, 1968, 186-219쪽.

49) 「편집후기」, 『주간국제』 제6호, 1952.4.26, 32쪽.

50) 양면문, 「실증과 항변의 서-소운씨의 「마이동풍첩」을 읽고」, 『주간문학예술』 제3호, 1952.6, 6쪽.

(1)

사춘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픈-거기까지는 좋다 하자. 그러면 사춘이 염병을 하면 안 먹어도 배가 질로 부를 이 도척의 심점-. 내 키가 커져서 앞서겠다는 경쟁심리에서 인류사회는 전진하고 발전한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중들은 제 키는 크려고 하지 않고, 남의 키를 눌러줄여서 제 키를 유지하려는 묘술을 쓴다. 여기는 전진 대신 무한의 후퇴가 있을 뿐이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과, 항구불변의 것과, 모랄에는 분명코 이 두가지 구별이 있다. 변하고 달라져야 할 것은 변할 줄을 모르고, 변해서 안 될 기본의 진실은 송두리째 낚아 버리고-. 우리가 서식하는 이 대한민국이란 하여튼 희한한 나라다.⁵¹⁾

(2)

일본에서 돌아온 김모 군이 힘겹게 책 심부름을 해줬는데 두 권이 빈다. 부산에서 R씨(호의적 인물평을 해줬던 명망있는 저자)가 「일본일기」등을 가로챈 것. 광복 후 7년 만에 전달된 첫 선물, 그것도 저자가 나도 친구도 아닌 순수한 선물의 반이 사라진 것. 양식 있는 지식인의 행동이라서 더 불안하다.

5년 전 이사 전날, 집 앞 길가 풀 뜯는 청년과 밭에다 오줌 누는 청년, 최소한의 양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 7년 전 소록도에 반창고로 땀질하고 있는 청년들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⁵²⁾

(3)

전쟁미망인, 납치미망인들의 윤락은 운운하는 이들의 표준은 청교도적이다. 그런 채찍과 냉소를 예비하기 전에 그들의 굶주림, 쓰라림, 눈물을 먼저 계량할 저울대가 있어야 한다. 신고와 고난에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절개와 용기는 고개 숙일 만하다. 그렇다고 도의 하나만이 유일무이한 기준일 수 없다. 거리에서 친구 부인 한 분을 만났다. 부군은 납치되어 생사 불명이다. 만식에 가까운 부인과 차를 나누며 자신을 경멸하냐는 질문에 나는 바둑판 얘기를 했다. 과실이 예찬할 것 아니

51) 김소운, 「후퇴족」, 『주간국제』 제5호, 1952.4.13., 25쪽.

52) 김소운, 「반창고」, 『주간국제』 제6호, 1952.4.26., 21쪽.

지만 인생의 ‘올 마이너스’일 까닭도 없다. 과실로 더 커가고 깊어가는 인격이, 정화되고 굳세어지는 사람이, 생활이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제 과실을, 상처를 가야반의 탄력처럼 제 힘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⁵³⁾

인용문 (1)은 「후퇴족」의 마지막 부분이다. 「후퇴족」은 이탈리아 영화 「자전거도둑」의 감상평인데, 작가의 시선은 관객들의 반응에 집중한다. 특히 관객들의 웃음소리, 그 “환소”가 놓인 자리에 무게를 싣는다. 즉 타인들의 불행에 무신경하다는 점이다. 이어서 부산여중 앞 전차사고에도 여성장관 N여사의 건재한 상황을 견주어 대한민국 민중의 현주소를 묘사한다. 자기발전의 상생적 상과 동떨어진 ‘후퇴족’의 면면이 뿌리박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분명 “변하고 달라져야 할 것”이지만 정작 현실은 “변할 줄을 모르고, 변해서는 안 될 기본의 진실은 송두리째 남아 버리고” 있음을 꼬집고 있다.

이때 작가의 시선은 “변해서는 안 될 기본의 진실”에 먼저 집중한다. 인용문 (2)는 광복 7년만에 일본의 지인에게 건네받은 책 선물이 반토막난 개인적 경험을 전경화한다. 반토막낸 당사자가 작가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양식있는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불쾌를 넘어 우려를 표시한다. 그리고 “7년 전 소록도에 반창고로 땀질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를 대비시켜 지성인의 자세와 행동에 경종을 울린다. 그것은 다음 호에 발표한 「포석선생」의 일화로 이어지면서 지식인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소신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토분록>의 마지막 발표작은 “변하고 달라져야 할 것”을 되묻는다. 인용문 (3)은 「특급품」의 일부로 작가 개인의 바둑판에 대한 취미와 애정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작가 개인의 소견에 불과하지만 특등품 바둑판의 품질을 가늠하는 것은 “반간에 흠터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것을 “전쟁미망인, 납치미망인의 윤락” 문제와 결합시키고 있다.

53) 김소운, 「특급품」, 『주간국제』 제12호. 1952.9.5., 19쪽.

그들을 경멸하는 세인들의 시선은 “도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청교도적 자세”든 엄격하고 단호하다. 그럼에도 “끓주림, 쓰라림, 눈물”을 견뎌야 할 현실은 도외시되고 기준 또한 ‘정조’가 유일무이하다. 여기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요구한다. “과실의 예찬”도 “인생의 ‘올 마이너스’”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제 과실을, 상처를 가야반의 탄력처럼 제 힘으로 다스릴” 힘과 기반이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전쟁기 풍기문란 문제는 『주간국제』에서 기사나 특집 등으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여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풍기문란 관련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남녀교제에서 성매매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끌어안는 동시에 다양한 입장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통제와 처벌을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이 다반사지만 이에 못지않게 변화하는 현실에 눈길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⁵⁴⁾ 그것이 「특급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렇듯 <토분록>은 첫 회에서 말했던 “변하고 달라져야 할 것은 변할 줄을 모르고, 변해서는 안 될 기본의 진실은 송두리째 낡아” 버린 현실을 다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변적 이야기로 출발한 <토분록>의 글들은 결국 피란지 부산의 일상들을 수렴하면서 독자들과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다 하겠다.

이에 덧붙여 주목할 지점은 한국전쟁기 작가의 글쓰기에 대한 자기반성이다. 「어느 어머니」에서 작가는 당시 글쓰기 상황을 전면화하고 있다. 작가는 글쓰기의 기준을 밝히는데, 즉 큰 이득 되는 일(정신/물질적), 일 자체가 나를 요구하고 보람 느낄 수 있는 것,知己가 같이하자는 일(이해타산과 영욕 없이)이어야 글쓰기에 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느 하나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을 토로한다.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청탁받는 대로 글을 쓰고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작가들의 열악한 상황을 대변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면

54) 「전쟁과 풍기문란」, 『주간국제』 제7호, 1952.5.8, 4-16쪽.

서 글을 써야 하는 거냐”고 되묻는다. 문화인으로서의 “사명감, 책임감”을 “벗어야 할 때”인지 자문하면서 무엇보다 “보람을 잃고도 글을 쓰는”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반성은 <토분록>의 출발점이 타인들이 아닌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토분록>은 다른 사회비평들과 달리 작가 사정으로 중단된다. 베니스 세계작가대회 참석 때문이며, 설의식의 <구기당산고>고 뒤를 이었다.

5. 사회비평과 문화정치

부산정치파동은 한국전쟁기 ‘예외상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이승만정권의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사건이다. 1952년 5월 25일 공비소탕을 구실로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과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언론 검열도 강화되었다. 『주간국제』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주간국제』가 내세운 비판적 저널리즘은 상당 부분 위축되었다. 제9호를 보도기사가 없는 문학특집으로 구성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부산정치파동 직전 『주간국제』의 사회비평은 <토분록>을 제외하고 모두 중지되었다. 내부필진의 사회비평과 날선 비판의식을 보여주었던 오소백의 코너들이 일거에 사라졌다. 사내 편집방침에 따라 강화된 언론 검열에 협력했던 결과라 하겠다.

우선 휴재대상은 단연 내부칼럼이었다. 이 시기 방사자의 칼럼은 특유의 단평을 변주하여 피란사회의 혼란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피란사회 제반문제를 망라했던 초기에 비해 고질적인 난제인 ‘술, 불, 밥’을 집중 조명하며 예리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던 것이다. <뉴스스토리>는 약간 결을 달리했다. 창간 초기 피란사회에 횡행하던 문제의 이면을 부각시키며 비판적 저널리즘을 강화시켜왔지만, <해의 뉴스스토리>로 전환하며 피

란사회의 알레고리로 고급관료와 유한계급의 부정을 다루었을 뿐이다.

여기에 비판적 저널리즘의 지향을 함께했던 오소백의 코너들도 중지되었다. 르포르타주 방식의 <거리의 정보실>은 피란수도 부산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전경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계의 방편인 직업 문제와 연계시켜 비판의식을 곧추세우고 있었다. <백면불> 또한 피란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풍자하며 외연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방사자 칼럼과 방향성을 달랐지만 비판정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매한가지였다.

창간 이후 『주간국제』의 사회비평은 비판적 저널리즘을 오롯이 내세우며 매체의 경쟁력을 확대해갔다. 명망 있는 필진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피란 서사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꾀한 것도 크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부산정치과동 직후 사회비평의 자리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김소운의 <토분록>이 남겨진 것은 칼럼보다 수필문학의 특성에 눈길 둔 까닭으로 보인다. <토분록>은 작가 특유의 감상적이면서도 비판정신을 살린 칼럼이었다. 피란사회의 당면문제를 외파해갔던 오소백의 칼럼과 달리 김소운은 규범과 윤리문제로 내파하며 비판적 성찰해갔던 것이다.

7월 24일 발취개헌안이 통과될 전후 『주간국제』의 사회비평은 다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내부칼럼만 해당되며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여 주었다. 방사자의 칼럼은 피란사회에 만연했던 불안의 정동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뉴스스토리>도 피란사회의 윤리문제에 치중하면서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 <토분록>이 내장한 비판적 성찰의 결을 함께 하고 있었던 셈이다.

『주간국제』의 사회비평은 피란수도 부산의 변화하는 일상문화를 가로지르는 피란 서사였다. 혼란한 피란지의 일상을 독자대중과 공유하며 호소력 있는 여론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이러한 면면들은 피란수도 부산에 깊숙이 파고든 일상문화의 풍경과 변화하는 사회문화, 그리고 문화정치의 속살을 분명히 한다. 결국 시사종합주간지 『주간국제』의 전략은 기존의 한국일상문화사와 현대문학사에서 결탁되거나 배제된 서사들이지만,

주간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학에서 서사로, 그리고 문화정치로 확장되는 자리에 놓여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전황이 아닌 정치파동 전후의 풍경은 피란수도의 발행매체들이 내장한 문화정치의 한계도 엿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 『주간국제(週刊國際)』 창간호, 국제신보사, 1952.1.12.
『주간국제』 제2호, 국제신보사, 1952.1.24.
『주간국제』 제3호, 국제신보사, 1952.2.15.
『주간국제』 제4호, 국제신보사, 1952.3.31.
『주간국제』 제5호, 국제신보사, 1952.4.13.
『주간국제』 제6호, 국제신보사, 1952.4.26.
『주간국제』 제7호, 국제신보사, 1952.5.8.
『주간국제』 제8호, 국제신보사, 1952.5.27.
『주간국제』 제9호, 국제신보사, 1952.6.16.
『주간국제』 제10호, 국제신보사, 1952.7.15.
『주간국제』 제11호, 국제신보사, 1952.8.18.
『주간국제』 제12호, 국제신보사, 1952.9.5.
『주간국제』 제13호, 국제신보사, 1952.9.27.
『주간국제』 제14호, 국제신보사, 1952.10.20.
『주간국제』 제15호, 국제신보사, 1952.11.20.
『국제신보』 1950.1.1.-1953.12.31.

2. 논저

- 강창부, 「6·25전쟁기 「전시생활개선법」과 후방의 ‘생활동원」, 『민족문화』 제86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330-336쪽.
공미희, 「한국전쟁기 부산의 경제상황과 피란민의 경제활동 연구」, 『지역사회학』 제23권 1호, 지역사회학회, 2022, 119-120쪽.
국제신문사 사사편찬실 편, 『국제신문오십년사』, 국제신문사, 1997.
권경미, 「‘목근통신’과 탈/식민적 이중성」, 『한국문화연구』 제31권, 이화

- 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6, 85-111쪽.
- 권명아, 「음란함과 죽음의 정치」,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9, 148쪽.
- 권혁태 · 이정은 · 조경희 편, 『주권의 야만』, 한울, 2020.
- 김광식, 「김소운이 주재한 아동잡지의 소개와 『목마』 창간호」, 『근대서지』 제22호, 근대서지학회, 2020, 53-63쪽.
- 김광식, 「김소운이 주재한 첫 과외교육잡지 『아동세계』 해제」, 『근대서지』 제23호, 근대서지학회, 2021, 413-426쪽.
- 김소운, 『김소운 수필선집』 제1권, 동성출판사, 1968, 186-219쪽.
- 김예림, 「현해탄의 정동-국가라는 “슬픔”의 체제와 밀항」, 『석당논총』 제49권,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1, 309-348쪽.
- 나상철, 「한국전쟁기 보국대의 의미와 성격」, 『학림』, 연세사학연구회, 2020, 203-242쪽.
- 박상현, 「김소운의 일본(인)관-식민주의에서 탈식민주의로」, 『비교일본학』 제39집, 2017, 141-158쪽.
- 박영기, 「김소운의 조선어, 일본어 혼성 과외교육잡지 『신아동』 연구」, 『문학교육학』 제72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21, 65-94쪽.
- 박재영 · 이완수, 「역피라미드 구조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4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08, 145-146쪽.
- 박지영, 「“번역불가능성”의 심연: 식민지시기 김소운의 전래동요 번역(일역)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42호, 민족문화사학회 · 민족문화사연구소, 2010, 274-309쪽.
- 배수찬, 「김소운의 글쓰기 환경과 번역작업에 대한 고찰」, 『문학교육학』 제34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213-242쪽.
- 베네딕트 앤더슨,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 빌헬름 안센, 권선형 옮김,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4: 전쟁』, 푸른역사, 2016, 90쪽.
- 부산일보사편찬위원회 편, 『부산일보 1946~1984』, 부산일보사, 1985.

- 양면문, 「실증과 항변의 서-소운씨의 「마이동풍첩」을 읽고」, 『주간문학 예술』 제3호, 1952.6, 6쪽.
-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 유영철, 「신문 칼럼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2012, 1-5쪽.
- 유재우 · 김준 · 송혜영 · 홍지완, 「부산의 한국전쟁 피란민 주거지와 피란주택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36권 3호, 대한건축학회, 2020, 9-12쪽.
-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제5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11-570쪽.
- 이봉범, 「잡지 『신천지』의 매체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제39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0, 393-409쪽.
- 이상의, 「한국전쟁 이후의 노무동원과 노동자 생활」, 『한국사연구』 제145호, 한국사연구회, 2009, 291-327쪽.
- 이임하, 「한국전쟁 전후 동원행정의 반민증성」, 『역사연구』 제12호, 역사학연구소, 2003, 39-67쪽.
- 이화진, 「한국전쟁 중 ‘악극인 밀항사건’과 환양의 기억술」, 『구보학보』 제19호, 구보학회, 2018, 179-204쪽.
- 정진석, 「현장을 역사로...9번의 사회부장-청오 오소백 언론사적 연구」, 『영원한 사회부장 오소백』, 서울언론인클럽 추모문집편찬위원회 편, 한국홍보연구소, 2009, 51-54쪽.
- 조르조 아감벤,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52쪽, 82쪽.
- 주인식, 『1952 부산, 이승만의 전쟁』, 기파랑, 2018.
- 최미진, 「한국전쟁기 『주간국제』의 문학 활동과 문학담론」, 『한국문학논총』 제87집, 한국문학회, 2021, 275-324쪽.
- 최미진, 「한국전쟁기 『주간국제』의 발간과 매체전략」, 『로컬리티 인문학』 제25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207-248쪽.

<Abstract>

Refugee Narrative and Cultural Politics of 『Weekly Kookje』 during the Korean War

Choi, Mi-Jin*

This article aimed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cultural politics by studying the terrain of the refugee narrative corresponding to the media strategy of “Weekly Kookje” during the Korean War. By paying attention to the social criticism prepared as part of the strategy to strengthen critical journalism, I tried to reveal the specific aspects and meanings of the daily life of the refugee society.

First of all, the social critique of the insider was the Bangsaseun’s column and <News Story>. Bangsaseun’s column has a critical approach to the chaos of the refugee society by varying the characteristic short commentary. The early short review, which covered all the issues of the refugee society, showed a sharp critical spirit in the focused type, but turned to deepen the affect of anxiety. <News Story> strengthened critical journalism by highlighting the other side of the problem that prevailed in the refugee society, but it was weakened by turning to <Overseas News Story> and focusing on ethical issues. To that extent, the social critics of the insider writers were being swayed by the in-house editorial policy in response to the strengthened media censorship.

Next, Sobaek Oh and Soun Kim were in charge of social criticism

* Pusan National University.

by outside writers. If Oh So-baek's two corners, <Street Information Room>, were a reportage that expanded from th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in Busan, the capital of refugees, to job problems, <Baek-myeon Bull> was a column that dealt with the problems of the refugee society as a short critique of murder. Unlike the Bangsaseun's column, the subject was enlarged and consistent with sharp criticism. In addition, <Tobunrok>, which Kim So-woon was in charge of, presented a uniquely sentimental and critical column. Unlike Oh So-baek's column, which addressed the immediate problems of the refugee society, Kim So-woon reflected critically on norms and ethical issues.

Finally, the refugee narrative of "Weekly Kookje" made it possible to microscopically examine the changing daily culture of Busan, the capital of refuge. These aspects made it clear the landscape of daily culture, the changing social culture, and the cultural politics that deeply penetrated Busan, the capital of refuge. Nevertheless, it was possible to glimps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cultural politics embedded in the publication media of the refugee capital, which was swayed by political fluctuations.

Key Words: Korean War, "Weekly Kookje", "The Kookje Shin Bo", refugee narrative, cultural politics, column, reportage, news story, Bangsaseun, Sobaek Oh, Sowoon Kim

■ 논문접수 : 2022년 04월 08일

■ 심사완료 : 2022년 04월 20일

■ 게재확정 : 2022년 04월 21일

